

시끌벅적 e-스타



키스는 영화 주인공처럼 달콤하게

수줍은 듯 입을 가리며 얼굴을 돌리는가 싶더니 이내 입을 맞추고 환하게 웃는수십 커플들.

모두 야구장을 찾는 평범한 사람들이다. 유니폼을 맞춰 입은 젊은 연인들을 비롯해 엄마와 아들, 아빠와 딸, 대머리 아저씨 부부 등 40여쌍이 영화 주인공처럼 달콤한, 과감하게, 때로는 장난이 가득한 키스를 나눈다.

입을 맞추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 모두 즐겁고 행복한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텃밭이다. 2분30초짜리 '야구장 키스 타임'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인터넷에서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의 경우 지난 7월 올라온 뒤 현재까지 89만명의 무더기 클릭 세례를 받으며 동영상 순위 1위에 올랐고 싸이월드 핫클릭 UCC 순위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키스 타임은 국내 프로야구 경기장에서 5회말이 끝난 뒤 구장 정리 시간에 관중 이벤트로 이뤄진다. 전광판에 키스 타임이라는 안내가 나가면서 특정 커플을 전광판에 비추면 지목된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입을 맞춘다.

지목된 사람이 키스를 하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키스해, 키스해', '한번 더'를 외치며 분위기를 띠우는 팬들도 적지 않다.

지난 2000년 잠실 구장에서 시작된 뒤 경기 믹션이나 불거리로 자리 잡았고 키스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동영상은 또 '큰 밥' 먹고 경기장을 찾았는데 자신을 비추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커플을 위해 '미리 구장 관계자에게 말해 놓으면 키스 타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귀띔했다.

/김지기자 dok2000@kwangju.co.kr

나의 승의 음·악·산·책

5·18이라는 시민 혁명의 역사적 사실, 그리고 그 시공간에 존재했던 소박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까운 곳에서 바라보는듯한 느낌의 영화, '화려한 휴가'는 지금 무대에서 내려오기 직전이다.

영화는 낮고 따뜻한 시각으로, 시민군들은 폭도도 불량배도 아니며 길을 가다 어디서나 마주칠 수 있는 당신의 동네 사람 그리고 이웃 그래서 당신의 친구 혹은 선후배에 딸을 아니었다는 말을 하고 있다. 그러한 사람들이 가진 자연한 요구 당연한 바람은 오만한 우월감 그리고 특권의식을 가진 어리석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짓밟혔다는 말을 하고 있다. 최점예의 전투 병력과 시민과의 전쟁, 그것은 전쟁이 아니라 학살에 가깝다. 그래서 결국 민

을 표현하는 일은 섬세하고 어려운 일이다. '화려한 휴가'는 그러한 부분의 '표현에 대한 마지막 선'을 조금 더 넓게 할 수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또 한 가지, 음악은 수학적이고 과학적일 수 있지만 사랑처럼 그냥 좋을 때 아름답다. 감성이 우선하는 것이다. 그것이 때로 영화에 적절하게 사용되었을 때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디어헌터'의 경우 고막이 터질것만 같은 전쟁의 포화 속에서 '러시안 블렛'이라는 살인 도박으로 처참하게 죽어간 친구를 목격해야 했던 장면을 본 사람은 잊지 못하지만 그와 다르게 너무도 평화로운 느낌의 음악 '카비타니'를 듣게 되면 역설도 이런 역설이 없다는 느낌이다. 보색 대비와 역설은 같은 맥락에서

이다. 그것이 때로 영화에 적절하게 사용되었을 때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디어헌터'의 경우 고막이 터질것만 같은 전쟁의 포화 속에서 '러시안 블렛'이라는 살인 도박으로 처참하게 죽어간 친구를 목격해야 했던 장면을 본 사람은 잊지 못하지만 그와 다르게 너무도 평화로운 느낌의 음악 '카비타니'를 듣게 되면 역설도 이런 역설이 없다는 느낌이다. 보색 대비와 역설은 같은 맥락에서

화려한 휴가, 아쉬운 O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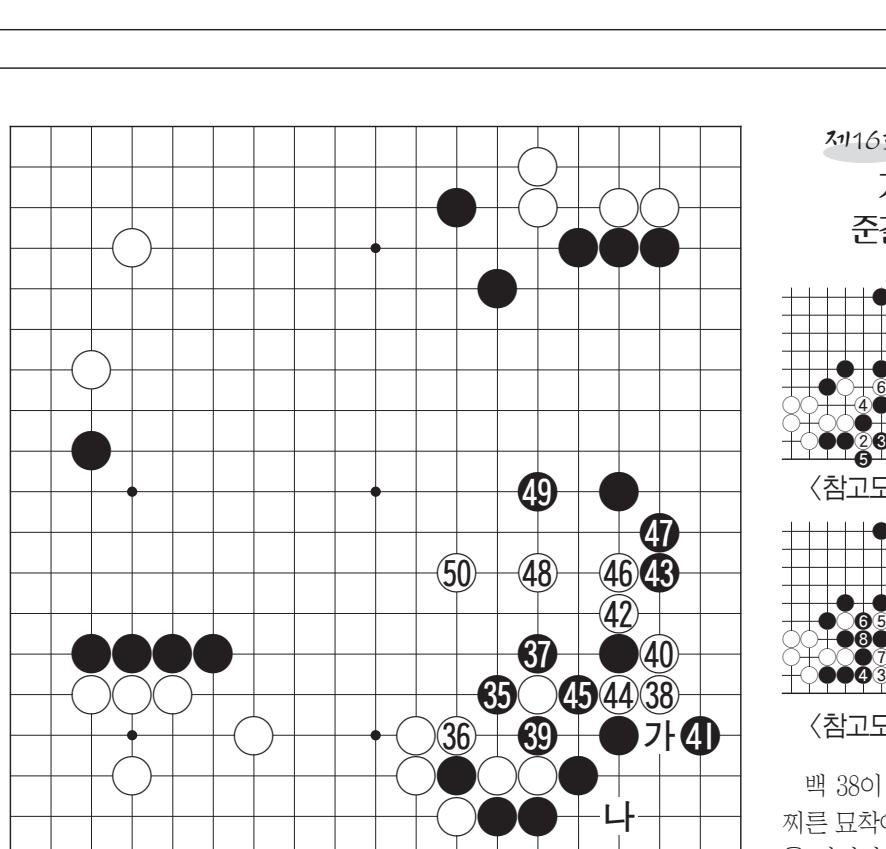
중 봉기가 축발된 것이라고 말한다. 영화는 통한의 기억도 되새기게 하는 힘을 지닌다. 그래서 필름은 사람들의 가슴을 떨게하고 눈물을 글썽이게 했다. 당시 광주에서 고등학교에 다녔던 필자는 내 곁, 이웃의 이야기였던 턱에 몇 번 인지 기억하지 못할 눈물을 닦아야만 했다. 오월이라는 어려운 이야기를 은막에 올리기 까지 고생한 모든 사람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

정치는 그리고 군대는 지극히 논리적이다. 게다가 그것이 독재정부의 한결을 더 나아가서 군사 쿠데타 독재 정부의 논리인 경우에는 폭력배들의 무자비한 인간들이 갖는 논리를 전개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고 우정은 조건이 우선되지 않으며 무독적 적일 때 가장 아름답다. 그러므로 그들과 반대되는 논리를 갖는다. 서로 상반되는, 그래서 극과 극에 가까운 내용을 갖는 것이다. 그러한 내용들이 영화 안에 공존할 때면, 일종의 보색 대비를 이룬다. 그래서 각자의 존재와 내용이 서로를 부각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영화적 언어에서 그것

생각할 수 있다. 제작진은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해 보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 드라마일 때는 철저한 드라마가 되어 주어야 한다는 필자의 생각이다. 그것이 사실에 근거 했든 아니든 무관하다.

한때 주지유립의 터리에 빠졌던 '탄호이자', 교황으로부터 구원 받지 못할 거라는 대답과 실망감에 잠적해버린 기사 탄호이자, 그와 같은 종세의 전설을 오페라로 만든 바그너, 그리고 그의 음악을 숭배 하다시피 한 '히틀러', 그는 '탄호이자'에 나오는 '순례자의 합창'을 제2의 국가로 사용하자고 했고 나찌의 선민의식, 특권의식의 꽂기는 마침내 유대인의 잔혹한 대량학살 현장에서 '탄호이자'의 음악을 사용하기를 이룬다. 음악은 그처럼 사용하기에 따라서 전국과 지목을 오르내리는데 지나친 비유라 생각지 말기를. '화려한 휴가'의 음악은 어울리지 않고 있다. 영화 음악적 깊이에 해당하는 용도가 부족하다.

그러나 좋은 연기자들의 성격에 적절한 노력은 자리를 빛내주었다고 생각한다. No Music No Life. <음악 칼럼니스트>



제16회 강의

개인전
준결승 1국

허를 찌른 묵착 3보 (35~50)

白 이창준 5단
(주)송립)
黑 김영수 5단
(빛고을교사회)

<참고도1>

포석의 기로에
선 장면인데 김영수 5단은 흑 35의 맥점을 찾아낸다.
백 40으로 유유히 밀어가면서 쉽게 수습이 되는 모양이다. 40으로는 '참고도2'의 백 1로 밀어갈 수도 있었다. 그러면 다음의 수순을 거쳐 11까지 살게 되는데 백은 이쪽이 알기 쉬운 의미로 있다. 허를 찌른 후 41이 또 실수. 나중에 '나'의 치중이 남아 손해를 보고 있다. 50까지 백이 성공한 모습이다.

<오규철 9단·본부 바둑해설위원>

KYODO 교보생명

바둑소식

조한승, 한·중 천원전 준우승

조한승 9단이 29일 중국에서 열린 제11회 한·중 천원전 3번기 제2국에서 구리 9단에게 304수 끝에 흑 반집 패를 당해 준우승에 그쳤다.

전날 선취점을 내줬던 조 9단은 초반 성공적인 포석으로 순조롭게 출발했으나 구리가 상반에서 통렬한 수를 들고 나오면서 수세에 둘린뒤 반전의 기회를 잡지못하고 반성을 물렸다. 지난해 3연패를 달리다 고군대에게 1-2로 역전패를 당해 준우승에 그친 구리는 이날 승리로 한·중 천원전에서만 4차례(7, 8, 9, 11회)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1997년에 출범한 이 대회에서 한국은 6 차례, 중국은 5차례 우승을 차지했다.

/윤경기자 penfoot@kwangju.co.kr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30일(음 7월 18일 丙申)

子 36년생 밖은 시끄러워도 자신은 편안하다. 48년생 겁장을 다시 한 번 짐작해보는 것이 좋으리라. 60년생 자신 있게 행동하면 큰 이익이 생기리라. 72년생 작은 병도 조심해야 한다. 84년생 가능한 변화는 주지 않으면 이득이 생긴다. 행운의 숫자 : 01, 42

丑 37년생 익출을 삼아 하면 액을 면한다. 49년생 상황은 어려워지지만 마음은 편하다. 61년생 돈구름을 잡고 있는 모습이니 현실로 돌아오라. 73년생 급한수를 돌아가라. 85년생 설수에 오를 수 있으니 행동을 조심해야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6, 36

寅 38년생 자신에게서 좋은 소식이 오니 행복하다. 50년생 기다리던 사람에게서 일찍이 소식이 온다. 62년생 광고 막고 앉는 좋은 일은 생기거나 전행운의 이득이 아닐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5, 45

卯 39년생 대로 앓을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처신해야 좋으리라. 51년생 산 넘어 산이니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하리라. 63년생 자신의 가치를 물릴 수 있는 활동에 집중하라. 75년생 시비에 휘말리거나 인내하라. 행운의 숫자 : 08, 39

辰 40년생 새로운 인생의 준비를 해보라. 52년생 부부간에 서로 이해와 배려에 노력해야 한다. 64년생 부부간의 사소한 언쟁이 있으나 예상은 새롭다. 76년생 가족의 식구는 늘어나는 경사가 생길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09, 28

巳 41년생 모든 지혜를 총 동원하면 해결된다. 53년생 지난간 일이 지나면서 새롭게 바꿔야 한다. 65년생 늘 생각하고 일어나는 일은 아침에 있으니 준비하라. 77년생 어려움은 닥쳐도 슬기롭게 해쳐 나간다. 행운의 숫자 : 21, 44

午 42년생 옛것에 너무 얹매이지 말고 새로운 길은 모색하라. 54년생 위장과 소화기계의 검진을 해보라. 66년생 두뇌장군은 없으니 상대방의 인격도 인정하면 좋으리라. 78년생 서두르면 실패한다. 행운의 숫자 : 07, 27

未 43년생 밤길에 비단옷 입고 다닌 격이 아니거나 않는다. 55년생 어려움은 닥쳐도 슬기롭게 해쳐 나간다. 67년생 능력을 발휘하거나 가슴은 답답하다. 79년생 자신의 능력을 모합하고 고지질하는 중간 사람을 보인다. 행운의 숫자 : 04, 23

申 44년생 일본전진을 위해 이보후퇴를 해도 늦지 않다. 56년생 결정을 내렸어도 다시 접기를 해보라. 68년생 꾸짖기보다는 조용하게 태이른만 순응한다. 80년생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형국에 진다. 행운의 숫자 : 02, 31

酉 45년생 이른 시간에 집을 나서지만 철일이다. 57년생 하루 종일 바쁘지만 소득은 기대마라. 69년생 부부간에 오해가 생길 일이 생길 수도 있으나 큰일은 없다. 81년생 자신을 모합하고 고지질하는 중간 사람을 보인다. 행운의 숫자 : 15, 24

戌 46년생 모았던 재물을 나눠가지면 복이 오리라. 58년생 친한 주변으로부터 모든 신뢰를 잃을 수니 정직하게 보내라. 70년생 다른 밤에 꼬 빼질까 걱정이다. 82년생 젊은 시간이라도 자신의 개발을 위해 투자하라. 행운의 숫자 : 10, 40

亥 47년생 눈치만 보다가 명예에 미칠하는 구설이 생긴다. 59년생 상선이 벽해가 되고 벽해가 상전되니 자신을 돌아보라. 71년생 죽마고우의 친구를 잊지 말고 옛 정을 찾으라. 83년생 의의 소비가 생긴다. 행운의 숫자 : 22, 33

www.cafe.daum.net/sajoo114 ☎ 011-632-6121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DermaPlast.
더마플라스틱 뱃드
제품구입문의: (주)효원약품 062-383-5883

굿모닝 잉글리쉬 <981>

Where's the museum?
박물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A : Excuse me. Where's the Metropolitan Museum?
B : Turn left at the next corner and go straight.
A : Is it far from here?
B : Oh, about a 5 minute walk.
A : Thanks for your help.

A : 실례지만, 박물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B : 다음 모퉁이에서 원편으로 돌아 곧장 가십시오.
A : 여기서 멈습니까?
B : 아, 걸어서 약 5분정도 걸립니다.
A :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Can you tell (show, direct) me~?
: ~길 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 가장 가까운 정거장이 어디입니까?
= Can you tell me where the nearest station is?
* 경찰아저씨, 시청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Officer! How can I get to City Hall?

오하요우 니혼고 <981>

候補(こうほ)に上(あ)がってんんだって。
후보로 올랐대

A : 山野さん頂垂(うなだれ)れちゃってどうしたんでしょうね。
B : 會社(かいしゃ)のリストで、解雇(かいこ)の候補(こうほ)に上(あ)がってんんだって。
A : そうなんですか。でも、突然(とつぜん)ですね。
B : こんどはいつ自分(じぶん)の身(み)に降(ふ)りかかるか、不安(ふあん)で仕事も手につきませんよ。

A : アマノ씨, 고개를 떨구고 어찌된 것입니까.
B : 회사에서 정리하고 후보로 올랐대.
A : 그렇습니까. 하지만 활동한 일이군요.
B : 이번에는 언제 자기에게 덮칠지 불안하여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아요.

リスト: 명퇴
候補(こうほ)に上(あ)がる: 후보에 오르다
仕事(しごと)も手(て)につかない: 일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
身(み)に降(ふ)りかかる: 재난이 덮친다

니하오 쟁구워 <171>

秀穂怎么算?
집세는 어떻게 계산 하나요?

A: 这是房源的介绍材料。请先看一下。
Zhè shì lángyuán de jìshùliào. qǐng xiān kàn yíxiān.
B: 好的, 房租怎么算?
Hǎo de, fángzū zěnme suàn?
A: 每月六元。要预付六个月, 不包括水电费。
Měi yuè liù yuán. yào yù fù liù yuè, bù bao kuò shuǐ diǎn.
B: 有点儿贵。
Yǒu diǎnr guì.
A: 이것은 인출에 대한 자료입니다. 먼저 한번 봐세요.
B: 집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한 달에 6엔입니다. 6개월에 선금을 낸 후 수도세와 전기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B: 조금 더세워요.

房權 [fángguàn] 집세
房源 [fángyuán] 房租 또는 월세 및 고액 대현 차운
材料 [cǎiliào] 차운
預付 [yùfù] 선금, 선세, 차운

한자 이야기 <598>

理判事判(이판사판)
다스릴 리, 가를 판, 일 사, 기를 판

이판사판(理判事判)은 조선시대에 불교에서 사용하던 이판(理判僧·公부승)과 사판승(事判僧·사무승)에서 따온 말이다. 이판사판은 본래 뜻이 전이되어 어떤 특별한 타개책이 없는 막다른 상황, 즉 '瞽掌'을 비유한다. 고려 말의 극심한 불교의 폐해를 경험했던 조선의 건국 세력들은 억불승유(抑佛崇儒) 정책을 강력하게 밀고 나갔다. 하루 아침에 탑의 대상이 되고 또 천민 계급으로 전락한 승려들은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사찰(寺刹)의 존속을 위하여 노력하는 사무승(事務僧)과 불법(佛法)의 맥(脈)을 잊기 위하여 은행하여 간경(看經), 참선(參禪), 염불(念佛)하는 공부승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런 불교 가풍은 조선시대 말까지 이어졌고 오늘날 현대 불교가 융성하게 된 밑바탕에는 이 두 부류의 승려들의 노력이 있었다.

하지만 당시 조선의 서슬 퍼런 억불정책 하에서 최하 계층인 승려가 된다는 것은 인생의 막다른 마지막 선택이었다. 그래서 이판이나 사판은 그 자체로 '瞽掌'을 의미하는 말이 되었다. 게다가 주권회복 이후에는 비구승을 이판승, 대처승을 사판승이라고 부르면서 두 부류의 분열과 반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였기 때문에 이판사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고착되었다.